

의회소식

서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최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조례심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원 징계요구 건에 대해 최종 승인·의결하고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22회 임시회 주요 안건

-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일 의원)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조영순 의원)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정영수 의원)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이주한 의원)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진출 의원)
- 평리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COUNCIL NEWS

5분 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6개 분야의 평가항목 중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안전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지금부터라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근순 의원

서구의회 여근순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종 통계로 보아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볼 때 서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세광 의원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에 대하여 여러 부서에서 관리되는 문제점과 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통매뉴얼의 필요성,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한 야외 화장실 관리와 시설개선의 필요성,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서구를 상징하는 마크디자인을 표시하자고 했다.



차금영 의원

서구의회 차금영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래전부터 정부차원의 권고 사업으로 주요 경관지점에 무궁화 심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무궁화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표상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우리나라꽃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제안했다.



구청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이주한 의원

Q1. 대구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서구의회 부의장)은 제22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자보수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관리실태, 구체적인 점검방법은?

A1. 관리부서에서 하자검사 대상과 시기, 검사자 등을 확정된 후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공사수행업체에 공문으로 하자검사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 수행업체의 입회하에 시설관리담당자가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발생 내용과 처리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하자가 없는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수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

Q2. 현재 하자보수 검사가 진행 중인 곳이 얼마나 되는지?

A2. 하자보수검사대상은 구청사 본관 전면 내진보강공사 외 269건이며, 하자보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부서의 시설현장 확인과 담당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음.

의회동정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대구 서구의회는 9월 8일 14:00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호강변 공공체육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서구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 저소득층을 위한 서구 푸드마켓 설치·운영 등 당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교환했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서구의회는 9월 18일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사랑을 전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종사자 고충청취, 시설운영 실태파악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대구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위문품은 소망모자원, 신애보육원, 노아의 집에 화장지, 세탁세제, 라면 등 생필품이 전달되었으며, 소외된 이웃과 명절을 함께 하면서 배려하고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